# 우리도 자비하신 관세음처럼 살자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⑬ 천수경2

불자는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굳건히 깨트려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따라 흘러가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롤로코스터를 탄 것처럼 온갖 평지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은 천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탐진치(貪瞋痴) 3가지 불행한 요소를 행복을 만드는 계정혜(戒定慧) 3가지 청정하고 맑은 지혜를 배워서 고쳐보라고 한다. 3독(毒)을 3학(學)으로, 불행한 오늘을 행복한 내일로 만드는 법이다. 10가지 원력으로 보리심을 낸 불자들은 6향으로 자신을 휘어잡고 늘어지는 업장을 떼어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타인을 위한 좋은 삶의 자세이며, 동시에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10원과 6향을 이미 발한 이들은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본사이신 아미타불을 오로지 생각하며 부르며 이 다라니를 외워야 합니다. 이 다라니는 모든 중생들을 고통과 액난에서 구하는데 하룻밤에 21편이나 49편을 외우면 오랫동안 지어왔던 악업을 녹여줍니다. 부처님, 만약 모든 중생이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였건만 지옥이나, 축생, 아귀의 길에 떨어지는 자가 있거나, 혹은 불국토에 태어나지 못한다면 저는 맹세코 정각을 이루지 않겠습니다. 이 대비신주를 지송하였는데 현재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일은 없사옵니다. 다만 착하지 아니한 자와 지성으로 외우지 않는 자는 제외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다.

중생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북 치고 장구 치며 졸음을 쫓아가며 밤새워 외우고 만 독이네, 천 독이네 한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착한 마음이 없거나 또는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청정한 삶을 만들고 내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래서 천수대비신주를 한 번 외울 때마다 오색실을 한 매듭씩 묶어 24번의 독송과 24번의 매듭을 만들어 목에 걸고 독송 정진하라고 한다.

중생의 모든 SOS를 들으시는 관세음보살, 무한한 능력으로 중생의 아픔을 잊게 해주시는 대세지보살, 천 개의 손으로 중생을 구제하는 천수관세음, 뜻대로 진리를 펴시는 여의륜보살, 정법을 향해 전진하도록 돕는 정취보살, 능력이 자재한 관자재보살, 지혜가 보름달 같은 만월보살, 물에 비친 달처럼 중생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 평등하게 구하시는 수월보살, 목마른 중생에게 감로수를 내리시는 군다리보살, 11개의 다양한 얼굴로 중생을 근기 따라 제도하는 십일면보살, 중생의 외로움과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계신 모든 보살들, 그리고 중생을 다 극락으로 부르시는 아미타불이시여. 어서 가피를 내리시어 신통한 다라니를 듣게 해주소서!

관세음보살이 드디어 대중 앞에 서서 합장하고 대비심이 가득한 미소를 지으시며 '광대원만 무애대비심 대다라니' 즉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말씀하시니 하늘에 꽃비가 내리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이 다 환희하시고 모든 마왕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대들은 모두 부처님 몸을 감춘 몸이니 99억 항하사 부처님께서 사랑하고 아껴주시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모두 광명을 감춘 몸이니 부처님이 항상 지혜의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이다."

관세음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감동하여 그 뜻에 따르고자 다음과 같이 서원한다. 이 위대하고 신통한 다라니를 외우는 장소를 청정케하는 사방찬과 도량찬을, 과거의 악업들을 참회하오니 모든 부처님들이 저를 증명하시고 반드시 구해주시길 청한다. 그렇게 시작된 십악참회는 몸으로 살생, 투도, 사음을 절대 하지 않으며, 입으로 망어, 기어, 양설, 악구를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탐진치 삼독심을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이다. 혹시 다른 이를 가슴 아프게 했다면 관세음께서 다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청하며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불자로서 명예롭게 살겠다며 여래십대발원문과 사홍서원과 삼귀의를 하며 천수경은 끝난다.

〈서울 반야사 주지〉

# 역경 및 고난서 벗어나 성공하는 길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⑬ 금강경 제16분이 주는 메시지 1

한국 불자들은 수행하면 의례히 간화선 수행을 연상한다. 이 간화선의 뿌리는 달마대사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에서 비롯되었는데, 조사선은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말씀처럼 마음 닦아 밝아지는 핵심을 곧바로 집어내, 한달음에 성불의 길로 들어가는 돈적(頓的)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간화선 수행자는 초발심의 수행자처럼 참회도 하고,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을 성심껏 지니지만, 선지식으로 부터 화두를 받아 본격적으로 선수행을 시작하여 홀연히 마음이 열리면 점수(漸修, 점차 닦아 밝아지는 과정)의 체계를 뛰어넘어 곧바로 부처님의 경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간화선 수행은 그 돈적(頓的) 특성 때문에 종종 그 수행의 과정이 생략되고 수행의 로드맵(Road map)이 추상적이거나 무시된다는 점에서 수행자들로 하여금 종종 공부에 흥미를 잃게 하는 등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한다. 아무리 탁월한 수행법이라 하더라도 수행의 로드맵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 수행, 또 밝은 선지식이 이끌어주지 않는 수행은 까딱 잘못하면 전등없이 밤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방황의 수행, 허송의 수행이 되기 쉽다. 그러나 금강경 16분은 선지식이 없이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 또는 로드맵이 없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헤매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훌륭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음 금강경의 구절은 각종 수행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는 수행자들 그리고 세상살이에 흥미를 잃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 희망이 되는 지침이 되지 않을까?

受持讀誦此經 若爲人輕賤是人 先世罪業 應墮惡道以今世人 輕賤故 先世罪業則爲消滅當得阿多羅三邈三菩提

비록 금강경을 수지독송한다 하여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사람 몸도 못받고 악도에 떨어져야 할 것이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가벼이 여기고 천대를 받는 연고로 전생에 지은 죄업이 바로 소멸되며 마땅히 밝아지게 될 것이니라.

즉 밝아지고자 하는 모든 수행은 16분의 말씀 중 수지독송차경(受持讀誦此經)에 비유되며,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은 수행중 일어나는 각종 장애에 비유할 수 있다. 약위인경천(若爲人輕賤)의 구절은 이런 낙심하는 수행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점에서 금강경 제16분은 각종 수행자들에게 수행 중 마장이 일어날 때 훌륭한 지침이 된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또 이 가르침은, 세상에서 평범한 삶을 살면서 각종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불자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가르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초년에 일찍 출세하는 사람이 말년 복이 적다는 말이 있다. 고생을 모르고 실패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 번 큰 재난이 당했을 때 속수무책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젊은 날의 부귀영화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하면 젊은 날의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귀영화가 사라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는 운좋게 역경을 딛고 다시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는 경우가 없지 아니한데,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은 재기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다시 추락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금강경 16분의 가르침은 수도인은 물론 보통 세상 불자들에게 순탄한 길에서 어째서 갑자기 내리막길로 떨어지는 원인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내리막길에서 다 향상의 길로 진입할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영고성쇠의 사이클을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는 지침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 "참선은 진여자성 깨닫는 것"

오조홍인(五祖弘忍) 대사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라, 세상 사람들은 죽고 사는 일이 큰일 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단지 복전을 구하고 생사 고해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구나. 자기의 성품이 미혹하다면 어찌 복으로 생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너희들은 각기 스스로의 지혜를 모아 자기 본마음의 반야성품을 취해 게송을 지으라 하시고, 큰 뜻을 깨친 자에게는 나의 가사와 법을 부촉해 육대 조사가 되게 하리라"고 했다. 이에 신수(神秀) 대사가 밤중에 게송을 지어 남쪽 복도 벽 위에 붙여 놓았다.

신시보리수(身是菩提樹) 심여명경대(心如明鏡臺) 시시근불식(時時勸拂拭) 물사야진애(勿使惹塵埃)라고

이 말뜻은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는 의미이다. 홍인대사가 볼때는 문밖에는 이르렀으나 아직 안으로 들어와 자성을 보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인 불성은 항상 공적(空寂)하고 청정(淸淨)하여 번뇌의 티끌이 낄 수가 없고, 번뇌도 본래 그 실체가 없는 것이어서 텅 빈 하늘에 먹구름 처럼 홀연히 나타났다가 바람이 불면 곧장 사라지는 허망한 것인데, 닦을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글자를 모르는 육조 스님은 동자에게 청하여 게송을 지어 조사당 서쪽벽에 붙여 놓았다. 보리본무수(菩提本無樹) 명경역비대(明鏡亦非臺)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 하처야진애(何處惹塵埃). 이 말은 깨달음은 형상이 없고 마음역시 실체가 없는 공성이므로 경대(鏡臺)에 비유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름을 붙일 수도 모양을 그릴 수도 없고 닦을 수도 없는 본래 청정한 공적영지한 자성 자리를 드러내 오조 홍인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육조 조사가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모두 갖춘 본래불임을 단번에 깨닫게 하는 돈오(頓悟)가 육조혜능선(六祖慧能禪)의 핵심이다. 육조혜능(638-713) 대사가 어느 날 법회를 하던 중 대중에게 유일물(有一物) 무두무미(無頭無尾) 무명무자(無名無字) 상주천하주지(上柱天下柱地) 명여일흑사칠(明如日黑似漆) 상제동용중(常在動用中) 동용중수부득(動用中收不得) 시심마라 설했다.

**"우리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부지런히 닦아서 거울에 티끌과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즉 "내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꼬리도 형상도 이름도 없으되, 위로는 하늘을 떠받치고 아래로는 땅을 받치며 밝기는 태양과 같고 검기는 옻칠과 같은데, 항상 동용(動用)하는 가운데 있으되, 그 곳에 있으면서 거두어 얻지 못하니 이것이 무엇인고 즉 이 뭣고" 하시니, 이에 하택신회(荷澤神會)(684-758)가 제불지본원(諸佛之本源) 신회지불성(神會之佛性)

즉 "모든 부처님의 근원이며 이 하택신회의 불성입니다"라고 답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려 해도 붙일 수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데, 어찌 네가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며 신회의 불성이라고 말하는가"라고 꾸짖었다. 이는 한 물건이 일초(一秒)도 변함없이 항상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그 놈을 찾아보면 얻을 수가 없으며, 눈으로 볼 수도 없지만, 부르면 대답하고, 욕하면 성낼 줄도 알고, 기뻐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 소소영영(昭昭靈靈)한 놈이 무엇인가, 바로 그 놈을 찾는 유일한 화두가 '이 뭣고' 인 것이다. 참선은 내 안에 있는 진여자성을 깨달아 금생에 견성성불(見性成佛)하는 것, 즉 생사해탈이 목적이며, 그래서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뭣고'인 것이다. 그래서 '이 뭣고' 한번 하는 것이 〈팔만대장경〉을 모두 다 읽어 마친 공덕(功德)보다 더 수승하다고 하는 것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직업 창업 교육원
약초 발효 아카데미
The Private Institute For Fermentation and Medicinal Plant
미래의 직업과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을 위한 자격증 위주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해당 지역 교육원에서 접수 교육합니다.

교 육 접 수 2018년 4월 12일 (목) 부터
개 강 일 시 2018년 4월 19일 (목) 부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음)
교 육 과 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과정 外

자격증 분야

| | | |
|---|---|---|
| 산야초차소믈리에 | 약용식물관리사 | 건강원창업반 |
| 전통발효교육사 | 천연식초교육사 | 전통주주조사 |
| 버섯종균기능사 | 장아찌교육사 | 천연비누교육사 |
| 발관리지도사 | 귀코디네이터 | 아로마캔들지도사 |

《 전국 교육원 안내 》

| 교육원명 | 주 소 | 연 락 처 |
|---|---|---|
| 부산교육원 | 부산시 서면 | 010-8216-8899 |
| 경남교육원 | 창원시 진해구 | 010-5576-2972 |
| 경기교육원 | 경기도 포천시 | 010-5331-6006 |
| 강원교육원 | 강원도 홍천군 | 010-8788-5550 |
| 충북교육원 | 충북 음성군 대소면 | 010-5380-2360 |
| 대전교육원 | 대전 대덕구 비래동 | 010-3405-7840 |
| 수원교육원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 010-8795-7490 |
| 광주교육원 | 광주시 북구 문흥동 | 010-3608-4300 |
| 용인교육원 | 경기도 용인시 | 010-4664-9788 |

신화 종합 불사 안내
■ 전통한옥 신축 철거 전문
■ 사찰부동산 양도
■ 법당 장엄, 인등, 연등 설치
■ 9평 산신각, 요사채, 특 A급, 가격저렴
■ 10평 정자 A급. 요사채 가능 (1천 2백만원)
■ 14평 요사채. 상태좋음, 가격저렴 (1천 2백만원)
■ 60평 법당, 대중간. 가격저렴 (1억 2천만원)
■ 석탑 5~7층 다수있음. (5~3천만원)
■ 수익형 기도처, 서울, 매매 21억 (2억, 월1천만원 세 있음)
■ 다수의 사찰 매물 있음
■ 이동식 주택 30평 설치까지 3천만원
010-6545-2020

당신의 전생을 알려 드립니다
나 보다 더 나를 잘 아는
내영혼의 메시지와 전생 이야기
전생의 인연법을 알면 현생의 해답이 보입니다.
》 궁금한 인연관계 《
연인, 가족, 부부, 동료 등의 전생인연 관계
》 미래의 일 《
배우자 선택, 진로선택, 직장문제, 일의 성사 등
》 빙의치유 《
최면심리치유, 빙의 치유, 전생체험,고인과의 만남
수행자의 상담을 환영합니다.
효총사는 관세음보살님께서 현현하시어 당신을 향한 가피와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효총사 010-6560-9117

다르마킹 칼리지
⊙깨달은 절수행
표정 자세 동작 호흡법 동작 알아차림 고마움의 감사 만트라 사마타 위빠사나 알아차림의 완벽한 절, 인류 최고 최상의 건강법
절교육 :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30분
⊙깨달은 염불禪수행
4박자 1분 15회 60박자 리듬 운율 호흡법 완벽해야 잡생각 딱 끊어지는 알파파 행복 홀몬 세로토닌 쏟아진다.(염불 독경하며 가슴 어깨로 역호흡, 입으로 들숨은 병 불행의 원인)
⊙깨달은 호흡법
누구나 저절로 자동 단전 공명호흡이 되어지는 7가지 특수동작(머리의 불을 끄고 배를 따뜻하게 하는 심신 건강과 수행의 핵심)
⊙깨달은 감사예경 명상
번뇌 망상 딱 끊어진 참마음 참나 불성 홀깃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전 11시~12:30
⊙깨달은 와선 수행
요지부동 삼매체험, 심신 이완의 최고 경지 몸 숨 맘 사라짐 체험
매주 화,수,목,금,토 오후 2시~3시, 저녁 7시~8시
⊙깨달은 참 행선 수행
황토마사길에서 맨발 11자, 오금 펴고, 손 악고, 가슴 들고, 입꼬리 올리고 미간 펴고, 미소 지으며, 시선 180도 몸 맘 지켜봄 알아차림
⊙깨달은 힐링 치유법회
7시간 쉬지 않고 화끈하게 웃으며 행복한 환희의 축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
⊙깨달은 삼천배 웰빙 힐링법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9시~ 일요일 아침 6시
※템플스테이 20대 출가 예정자, 대학생, 군인, 재수생은 무료
(재)깨달은 공동체 법왕정사
한불 몸숨맘 사띠 연구소 청견
www.법왕정사.net ☎ 010.3487.0035